

열린 마음으로 무재해의 길 열어

-풍림산업(주)여주 우회도로 개설 공사 현장-

민족의 젖줄인 남한강을 중심으로 푸른 산과 넓은 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천혜의 고장, 전국 제일의 생활자기를 생산하는 여주에서 도예가의 마음으로 안전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곳이 있어 찾아갔다.

준공이래 지금까지 무재해의 길을 달리고 있는 풍림산업주식회사 여주 우회도로 개설 공사 현장(이규홍 소장)이 오늘 찾은 초일류 현장이다.

이 현장은 국도 37호선과 국도 42호선이 여주시까지 중심을 통과함으로써 교통량의 혼잡과 지역간 연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까지를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4차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돌관작업에서의 무재해 이력

남한강 줄기 중 여주시를 관통하는 강이 가장 깊고, 넓어서 강위에 신여주대교를 설치하는 작업은 공사구간 중 가장 위



이규홍 소장

험한 공정이다.

또한, 남한강은 충주댐과 연결되어 있어, 수문을 열게 되면 이곳 수위가 올라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비가 오지 않아 안심이지만 장마철 등으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환경법에 의해 교량 공사는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갈수기(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작업하라는 조항이 있어, 최근 비가 오지 않음을 이용한 작업 강행은 자칫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으나 이규홍 소장이 지향하는 원리 원칙은 오늘까지 무재해를 이룩하고 있다.



하부 공사시 우기철 대비에 주안점을 두어 철저한 조치를 취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주기적으로 충주댐 관계자와 연락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을 한 것이 돌관 작업에서도 무재해를 이룩할 수 있는 근본이 되었다.

추락근절운동

풍림산업(주)는 전사적으로 2002년을 추락근절운동의 해로 정하고 추락조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소작업에 대한 추락재해에 방대책으로 “법에 있는 안전수칙 준수 조항을 철저히 지키고, 작업전·후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재해는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규홍 소장의 지론이다.

이규홍 소장은 직접 교각에 올라가 안전시설을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보는 세심함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추락근절운동은 매주 토요일 협의체 회의시 소장 등 직원이 그 동안 점검한 사항을 발표하여, 시정토록 한다. 또한 다음 공정에 대한 위험분석 Sheet를 만들어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

무재해 8년을



맞는 환상의 팀

이규홍 소장와 하재안 차장은 찰떡궁합의 환상의 팀이다.

서울의곽순환도로에서 두 사람은 무재해를 이룩한 적이 있었다. 이후 하재안 차장은 서해안고속도로 현장에서 무재해와 유공

자 표창을 받는 등 안전의 베테랑으로 거듭나면서 이곳 여주에서 다시 만났다.

개인적으로도 이규홍 소장와 하재안 차장은 올해가 무재해 8배를 달성하는 해로 닦은 꼴이다.

이 곳 현장은 풍림산업에서 최고로 큰 토목현장으로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장이다. 관심이 집중된 이곳에 두 사람은 2002년 상호교류 점검 결과상반기 최우수 토목현장으로 이끄는 등 또 한번의 일을 저지를 태세이다.

근로자는 가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이

초일류 현장 탐방

며 이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어 지고 있다. 또한 이들 근로자들은 가정에서 가장이고, 소중한 아들이기에 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책임이 있고, 이들을 역시 나의 지시대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규홍 소장은 상호 기본을 준수할 때 무재해는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다.

또한, 화재안 차장은 이란에서 근무할 때 중기부반장이 암으로 타향에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젊었을 때 집을 떠나 10년이 지난 지금 시신으로 돌아온 가장 앞에 가족들이 오혈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뜻하지 않는 갑작스런 죽음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보았다고 한다.

우리 동료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이성을 등질 때 또한 그 가족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화재만 차장은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동료의 가정을 지켜준다는 신념을 갖고, 안전인으로 14년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겹겹이 안전으로



재례형 재해 예방

여주우회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시설 이외에 휴먼에러 측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법에는 안전난간대 중간대는 45, 90cm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신체가 발달하여 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 난간대를 60, 120cm로 설치하고, 난간대 전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겹겹이 안전을 실시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에 근로자를 위해 열음을 갖다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최고의 안전활동이다. 근로자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러한 열린마음에서 무재해의 길이 열린다고 이규홍 소장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끝으로 준공 그 날까지 무재해를 이룩하길 다시 한번 기원하며, 무재해 3배 목표 달성시 다시 한번이 현장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사진 : 최종덕 기자)